



소비자 광장

독성 강한 인체용 에어졸, 플라스틱까지 녹여

여름철, 특히 여행갈 때 필요할 것 같아서 S제약의 모기·벌레용 에어졸을 하나 구입했다. 이 에어졸을 신체 주변이나 몸의 노출 부위에 뿌려 주면 모기, 진드기, 날벌레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TV 장식장 속에 넣어 두었던 이 에어졸이 쓰러 젖었다. 구입한 지 며칠이 지나 물건을 꺼내려고 장식장 문을 열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었다.

안쪽을 들여다 보니 에어졸 마개에서 새어나온 액체가 베니어 판에 흘러 베니어 판이 녹아 있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에어졸 뚜껑도 액체가 닿은 부분은 녹아 내려 있었다. 얼마나 독한 약품이 들었길래 베니어 합판과 플라스틱이 다 녹는단 말인가.

나는 휴지로 에어졸을 감싼 다음 베란다로 나가 한 번 뿌려 보았다. 냄새가 매우 독했다. 사다 두기만 하고 써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사람이 맡기에는 너무 독한 냄새다 싶었다.

설명서를 읽어보니 인체에 뿌릴 때는 몸의 부위에서 20cm 정도 떨어져 뿌리라고 적혀 있었다. 그렇지만 녹아버린 합판과 플라스틱 뚜껑을 생각해 보니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아무리 모기가 독해졌다고 하지만 모기도 잡기 전에 사람부터 잡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품에는 분명히 인체용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피부에 뿌려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약 치고는 너무 독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약품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독성이 강한 약품들은 철저히 규제되어야 한다.

■ 박윤식(인천시 서구 오류동)

새차·중고차 차등없는 자동차세

일률 부과는 부당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1백만대를 돌파한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다. 이제 자동차는 우리 생활의 일부로, 없어서는 안될 문명의 이기로 자리잡았다.

자동차세는 일시 납부제를 제외하고 보통 후불제로 1년에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내고 있다. 그런데 이 자동차세를 낼 때마다 자동차의 재산 가치, 즉 내구연수와 상관없이 1년도 안된 새 차와 폐차 직전의 중고차가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현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자동차 보험료와 차량 매입시 내는 취득세 및 등록세도 차량 가격, 즉 내구 연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값가 상각된 금액에 비례하여 부과하지 않고 항상 신차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행정 편의적인 정책이 결과적으로 자동차 재벌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신차를 팔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은 아닐는지?

미국 등 자동차 선진국에서와 같이 소비성 충동 구매에서 탈피해 경제적 부담이 적은 중고차를 선호하는 풍토를 만드려면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들의 부담을 가볍게 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내구연수에 따른 차량 가격 산정을 하게 되면 세금 부과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표준화된 차량 가격 산정 자료를 만들어 자동차 보험료 산정과 보상 등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 서정민(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여름철이면 더욱 골치이픈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처리하자

이제 곧 장마가 찾아올 것이고 장마가 끝난 다음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다리고 있다. 여름철이 되면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주부들의 고민거리로 떠오르게 된다.

누구나 한번쯤은 집 앞에 쌓인 쓰레기 봉투를 보고 눈살을 찌푸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물이 새어 나와 길 위로 흐르는 일이 다반사고 악취도 매우 심하다.

조금만 신경 써주면 이런 보기 싫은 광경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여름에는 과일 껍질 등 물기가 많은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이럴 땐 신문지나 쓰지 않는 종이를 사용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싱크대 위에 종이를 잘라 한 쪽에 놓고 껍질을 꺾을 때 사용하곤 하는데 물기를 흡수하고 냄새도 줄일 수 있다. 하

소비자 광장은 독자 여러분이 만드는 난입니다. '소비자시대'에 바라는 글이나 소비자가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를 담은 수필·제언·만화·만평·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가 채택된 독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그달치 '소비자시대'를 드립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통장계좌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37-700 서울시 서초구 영곡동 300-4 한국소비자보호원 정보기획팀 '소비자 광장' 담당자 앞
- 문의 전화 : (02) 3460-3287(임은정)
- PC통신 : 하이텔 ID pubsobol 천리안 ID cpbdcet
- FAX : 3461-0271

루 정도 종이 위에 껌질을 놓아 두었다가 버리면 수분이 날라가 쓰레기 부피도 줄어들게 된다.

또 하나, 여름에는 쓰레기가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자주 버려야 하고 봉투가 찢어져 쓰레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할 기을어야 한다. 쓰레기 봉투를 용량이 제일 작은 것으로 사용하면 쓰레기를 오래 집안에 두지 않아도 되고 환경 미화원들이 쓰레기 봉투를 옮기기도 쉬워 쓰레기로 인한 불쾌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최은영(인천시 남구 주안8동)

중고물품, 쓸만한 물건만 깨끗이 손질해 팔아야

지금엔 태어난 우리 아기가 뱃 속에 있을 때 일이다. 바쁜 탓에 출산용품 하나도 준비 못한 나는 출산 달이 돼서야 조금한 마음에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 걱정을 하던 중 생활정보지에 아기 옷과 용품을 2만원에 판다는 광고가 있어 찾아갔다.

그러나 물건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들이었다. 물건 주인은 재빨리 "한 번 정도 빨아 입혀야 할 거예요"라고 하며 이건 직접 뜯 스웨터, 이건 미제 턱받이라고 자랑을 했다.

예쁘지도 않은 흰 옷 한 보따리에 2만원은 과하다 싶어 좀 깎아 주길 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자기도 애들 간식이라도 사주려고 물건을 파는 것이라며 아기용품은 깎는 게 아니라는 충고까지 덧붙였다.

만삭의 몸으로 버스를 갈아타며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찾아 가느라 너무나 힘이 들었던 나는 '신생아기는 잠깐인데 그냥 사자'는 마음에 그만 판단력을 상실하고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 2만원을 건네주고 나왔다.

집에 와서야 그 옷들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건 기대에 못미치는 정도가 아니었다. 직접 떼다며 자랑한 스웨터는 아기에겐 따갑고 크기도 너무 작았으며 앞뒤판의 털실 색깔이 달랐다. 배넷 저고리에는 얼룩이 있었고 턱받이는 끈이 떨어졌으며 낡고 누린 기저귀 커버, 납작해진 베개, 후줄근한 아기 띠와 물이 다 빠진 허연 잠바, 인심쓰듯 덤으로 준 임신복 상의도 걸레처럼 낡고 볼품없었다.

예쁜 것이 없다는 생각은 진작에 했지만 한결같이 물이 빠지고 얼룩이 지고 젖버린내가 나는데다 때가 묻어 쓸모없고 더럽기 짝이

없었다. 결국 다시 찾아가 돌려주고 왔지만 실망과 피로로 몸살이 나 버렸다.

앞으로 누구도 나처럼 고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중고물품 매매시 다음 두 가지는 꼭 지켜졌으면 한다.

첫째, 남이 쓰던 물건을 살 때는 예의를 지키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감히 거절한다. 둘째, 내가 쓰던 물건을 팔 때는 쓸만한 물건만 깨끗이 손질해 내놓는다.

활성화 되어가는 중고 시장이 이용자들의 바른 태도로 더욱 사랑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기영(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2동)

환경 호르몬 검출되는 컵라면 용기, 업계 대책 전혀 없어

얼마 전 컵라면 용기에서 인체에 유해한 환경 호르몬 물질이 검출된다고 해서 크게 사회 문제화된 적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컵라면을 먹으면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떠들석하더니, 또 하나의 냄비 현상이었을까? 시간이 좀 지나자 컵라면을 즐겨 먹는 소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물론 컵라면을 먹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지만 환경 호르몬 사건을 전후해서 라면업계에서 보이는 모습은 사뭇 대조적이라는 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처음에는 당장이라도 인체에 무해한 종이 용기를 개발할 것처럼 말하며 소비자를 위하는 척 하더니 이 문제가 조금 잠잠해지자 그런 약속은 온데 간데 없고 예전과 똑같은 용기에 라면을 담아 팔고 있다.

컵라면 용기가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를 따지기에 앞서 소비자의 건강은 뒷전이고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표리부동하는 라면업계의 태도에 소비자들은 신뢰를 가지기 힘들다.

먹기 편한 컵라면은 여전히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컵라면을 먹으면서도 환경 호르몬 문제 때문에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라면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하루 빨리 대체 용기를 개발해주었으면 한다.

■유재범(대전시 유성구 궁동)●